

## 여러분의 몫입니다.

### 성별 격차에 대한 고찰

다양한 뉴스매체에서 여성과 남성의 투표성향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때, 성별 격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에는 은근히 남성 유권자들이 표준이고, 여성 유권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집단으로 치부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후보자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마치 여성 유권자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파악이 어렵다는 듯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던지는 질문인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표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남성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배경이나 근거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치 여성 유권자들이 표준인 것처럼, 여성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계몽된 사적 이익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자신과 가족, 자신들이 잘 아는 사람들과 장소, 기업들과 공동체들의 필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의료보험을 포함해,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가능한 양질의 의료보험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산모의 건강은 자녀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며, 여성들이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데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인 의료보장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의료보험과 함께 영양공급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식량을 얻기 위해 전국의 모든 푸드뱅크 및 일리노이 주의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레시 베이츠 데이비스 커뮤니티 센터(Lessie Bates Davis Community Center)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토버만 네이버후드 센터(Toberman Neighborhood Center)와 같은 전국 선교기관들을 찾는 가정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나 어르신 또는 우리 자신 모두가 대기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며, 크고 작은 기업들이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마시며 살고 싶어합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교육입니다. 내 가정과 지역, 이 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년들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를 다닐 수 있거나 홈스쿨이 가능한 운택한 집안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 평생 소외당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학교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를 원치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 기금에서 “요람에서 감옥 파이프라인까지”라고 부르는 현 시스템은 주로 아프리카-아메리칸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족들 또는 그들의 재능과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안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소지의 확산이 지역사회의 안전이나 세계의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법”이 있다고 해서 폭력이 사라지거나, 사회가 안전해 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기를 구입하고 소지하려 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발전지향적이며, 결속력이 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은 무기나 군비 확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구축을 통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목록도 아니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별 격차가 있을 때면 반드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과 전국의 여성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도록 요구하여, 성별 격차를 사라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여성과 남성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